



이제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 가 시행되면서 치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에서의 치매 노인 인권 침해 및 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위협, 협박, 무시, 방치 등의 정서적 학대 등의 어두운 측면이 여전하다. 치매는 요양인, 간병인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과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복지정책이다. 2017년부터 전국 256개의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2018년부터 중중치배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고,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 요양 치매 수급자 본인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이처럼 모두가 부담을 가 지고 있는 것이다. 치매 환자 본인의 삶의 질 상승뿐 아니라 돌봄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여 줄 장기 요양 시설을 통해 새로운 선순환을 가져오고자 한다.

연도별 치매 환자 현황 추정치

출처 | 중앙치매센터 | 2018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775-19

의료시설 인프라 : 차로 10분 이내의 대형 병원이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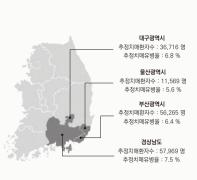
자연환경 요소 : 건물 뒤로는 산, 건물 앞으로는 바다 위치

사회적 교류 : 차로 20분 거리에 읍내와 노인시설이 위치

SITE ANALYSIS

● 남해노인요양시설

산과 바다를 섬기는 섬, 남해 경상남도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남해군으로 2020년 기준 총인구수는 4만 2,688명인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6,34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20% 이상 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는데 남해군의 고령화 지수는 38.3%로 이미 초고령화 지수를 훨씬 넘는 지수이다.



경삼도의 추정 치매 유병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경삼도 치매환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고령화 도시인 남해에 자연경관을 활용한 치매 장기 요양 시설을 계획하였다.

USER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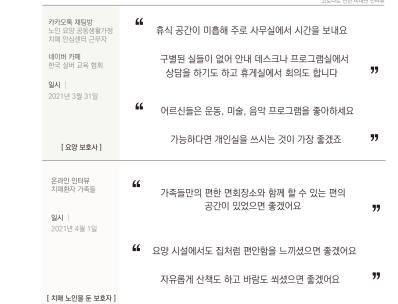
치매 노인 다양한 원인의 뇌 손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남. 증상에는 기억력, 지남력, 주의력, 언어능력, 수행능력 등의 인지 기능 장애와 우울, 불안, 공격 등의 행동 장애로 나타난다.

장기 요양 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과다한 업무량과 장시간 노동으로 스트레스 조절 및 복지와 편의 시설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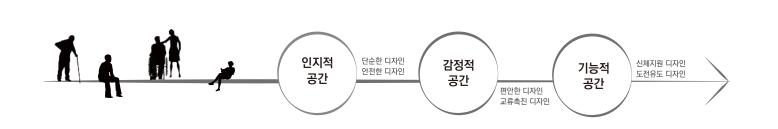


간병이나 면회를 통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으로 환자가 병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돌봄을 제공하며 과중한 책임감과 심리적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INTERVIEW INVESTI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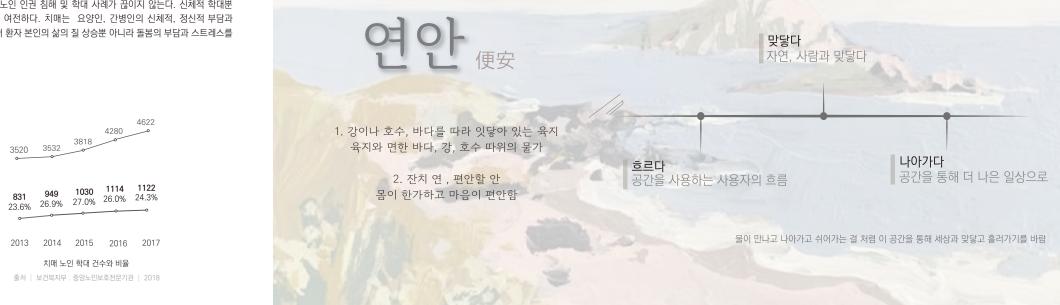
LITERATURE REVIEW



배회 : 의도적 배회공간 자극 : 다양한 시각자극 , 실내외 연결 자연 : 실내정원, 자연조망 구분 : 실내마감재의 종류와 색등을 통해 공간 명료하게 구분

조명 : 따뜻한 난색조의 옅은 색 신체지원 디자인 : 보조 핸드레일, 보조기구 장애물 없는 바닥

도전유도 디자인 : 부엌, 운동, 물리치료 실 등 공간 : 개인실 가까이 공동공간 교류 가능한 간단한 활동 참여유도



DESIGN GOAL



우연하고 계속되는 다양한 소통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해 각각의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도모하여 즐거움과 행복을 증진하고 스트레스와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나누어 가져 완화



장기간을 집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치매 노인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집과 같은 공간과 존엄을 유지 할 수 있는 노인 개인을 존중하는 사적 공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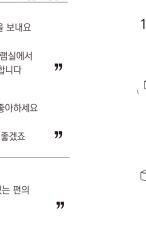


느끼게 함



실내외의 자연 친화적 디자인과 넓은 자연 경관을 활용하여 시설에 묶인 것이 아닌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 가는 듯한 편안한 마음을

MASS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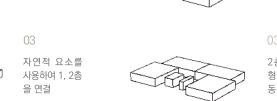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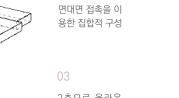
응봉산, 상주 은모래 비치

상 남해병원, 남해국립병원

읍내, 노인요양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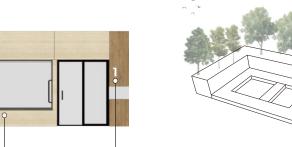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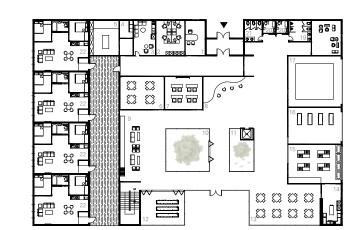


Details for elder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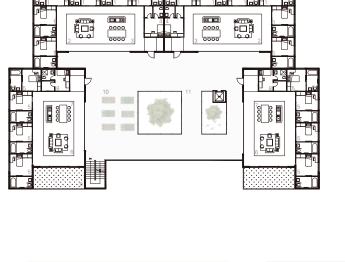












DESIGN DEVELOPMENT

Process 1 흐르다

공간을 따라 쉽게 흐르는

하나의 배회 동선 생성

교육공간을 통해 충만한

일상으로 나아감

Process 2 나아가다

1st Floor - 공용공간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중간 다리 삽입

자연요소들로 다채로운

일상으로 나아감

1. 개인공간에서 나가지

않고 자연을 경험

실내온실을 통해 자연속에서 채광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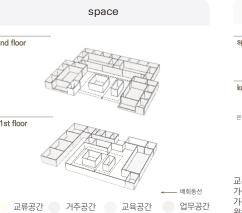
둘러싼 공간들로 배회로가

중심이 되어 동선을 형성

사회적 만남으로 소통하는

3. 현관문을 나서면 허리를 굽 히지 않는 야외텃밭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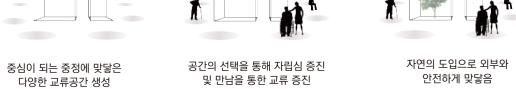
일상으로 나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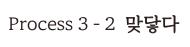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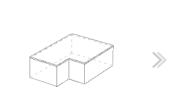








Process 3 - 1 맞닿다



5. 자연적 요소를 실내로 가져와

자연을 경험

내외부를 연결시키며 기계적 설비(냉난방)의 환경에서도

자연요소와 맞닿을 수 있는

공간 형성

4. 중앙 중정을 둠으로써 공간 어디에 있든 자연을 경험



각각의 집들이 맞닿아

서로를 연결

6.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노인분들의 삶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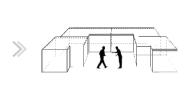
활력을 증진



7. 현관문을 나서면 햇빛을 받으면서

배회를 할 수 있는 야외 산책로 마련





거주민들의 시선이 맞닿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





개인실 문의 색 구분으로 본인 방에 대한 인지 상승









바다와 맞닿은 통창의 식당으로 단지 식사를 하는 것 만이 아닌 자연을 보며 식사시간을

식당에 멀티 데스크를 마련하여 휠체어

사용자는 물론 모든 사용자들이 취향에 맞게

간단한 소스나 커피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택이나 취향을 존중하여

교류 공간 속에서도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자연적 요소를 실내로 도입하고 중앙이 아닌 벽을

바라보도록 배치해 다른 교류 공간과는 대비되는

물결형의 책상으로 휠체어석과 일반석의 구분을

없애 휠체어가 자유롭게 들어오고 움직일 수

있으며 유선형의 각이 지지 않은 안전하고 쉬운

space

교류공간

차분한 공간을 두었다

furniture design

접근성을 제공한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된다

furniture design





